

국민1인당 산림면적 416평(0.14ha)

'98년 한해동안 5,000ha산림이 산업 및 농업용으로 쓰여져

산림청은 '98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의 65%인 6,436천ha라고 밝혀졌다. 이는 산림청이 출범한 1967년도 6,640천ha에 비하면 서울시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204천ha가 줄어든 것이다.

또한 '98년 한해동안 남산면적(297ha)의 17배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 산림청이 조사 발표한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산림청 개청 이래 매년 평균 6,400ha씩 감소되어 왔으나 지난해에는 5,000ha가 감소되어 IMF영향이 산업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을 산림면적감소에서도 실감케 하였다.

● 지난 한해동안 감소된 우리나라 산림은 남산면적 297ha의 약17배에 해당하는 5천ha이며, 산림의 전용내용은 도로용지 851ha, 공장부지 838ha, 논·밭 496ha, 목장용지 323ha, 과수원 259ha 등 사회간접기반시설 및 농업용으로 전용되었으나 이는 예년 평균감소율에 비하면 22%가 줄어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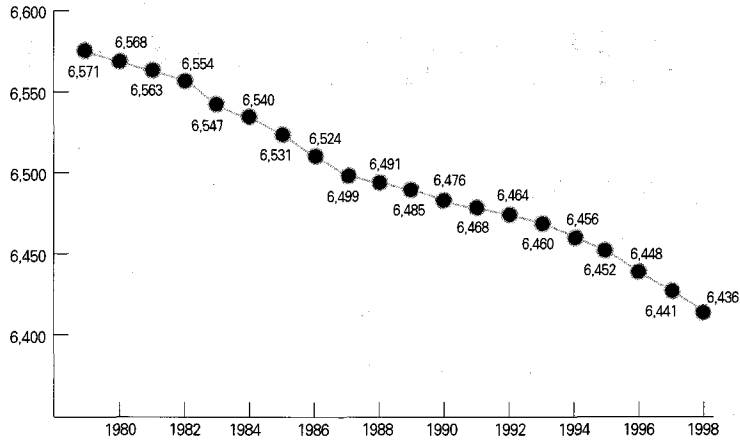
● 산림청이 출범한 1967년도의 산림은 국토면적의 67%인 6,640천ha이었으나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산림이 사회간접시설의 토지 수요의 공급원 역할

을 하면서 30여년동안 서울시 면적(60,558ha)의 3.4배에 이르는 204천ha의 산림이 산업용지 등 타용도로 공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여왔다.

●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형태를 보면 사유림이 70%(4,529천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국유림이 22%(1,419천ha),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유림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청은 지속적인 국유림확대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국유림을 전체산림면적의 30%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은 국토경관 보존과 생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산림청은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면적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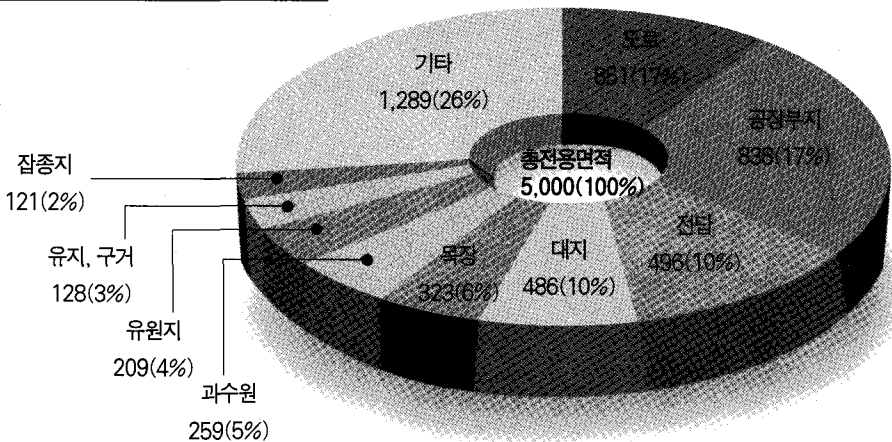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년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면적	6,571	6,568	6,563	6,554	6,547	6,540	6,531	6,524	6,449	6,491
년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면적	6,485	6,476	6,468	6,464	6,460	6,456	6,452	6,448	6,441	6,436

1998년 산림면적 전용내역



전용내역

(단위 : ha)

구분	총계	도로	공장부지	전답	대지	목장	과수원	유원지	유지, 구거	잡종지	기타
전용면적	5,000	851	838	496	486	323	259	209	128	121	1,289
%	100	17	17	10	10	6	5	4	3	2	26